

목포시, 재난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

재난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시우량 30mm 초과시 비상근무

목포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 대응과 유기적인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6명을 신규 채용해 3교대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은 재난 유형별 상황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한다.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매년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사사업장 및 민간위탁 현장까지 포함하는 종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법령 준수, 안전 수칙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와 축제에 대비해 12회의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87개 안전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축제 개최 전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



목포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축제 개최에 앞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목포시 제공

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현장 점검을 완료한 후에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지역 227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125개의 그늘막, 쿨링포그 2개소, 살수차 2대를 운영 중이다. 또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시우량 30mm 초과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체할 활동과 비상근무에 나선다.

목포시는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지능형 영상분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최첨단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1km당 58.23대의 CCTV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 보행길 조성, 비상벨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목포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재난 및 사고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65일 시민과 소통하며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장성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장성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원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

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동보조기기를 운전한 당사자(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장성군은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애인고령 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나주시, 청소년 100원 버스 교통카드 전용 변경

나주시는 7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 이용 방식을 교통카드 전용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7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며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다.

나주시는 현금 이용 시 버스 이용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고 광역버스(997·998·999·160·161번)의 현금 승차 패지로 혼선 방지를 위해 이용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6

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 마을, 급행, 순환, 콜버스 등 관내 전 노선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선 8기 교통 복지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버스 이용 정책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급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이재술 기자



함평군이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벼 병해충 방제 지원...18일까지 접수

6875ha 5억원 투입

함평군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함평군은 7월~9월 집중 방제 기간에 2개 사업, 총 6,875ha 벼 재배면적에 5억1,500만원을 투입해 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 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함평군은 9월까지 영농철 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고온 다습한 기상 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완도군,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회는 인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로 2023년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완도군은 보고회에서 치유 관광, 외국인·귀족 확대, 스마트팜·수산 가공 분야 창업 지원 등 지역 자원과 여건을 연계한 23개의 시책을 발굴·보고했다.

신규 시책으로 △청년·신규 귀촌 인구 유입 위한 농지 취득 요건 완화 △계절 근로형 비전



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문 비자 신설 및 자격 요건 통합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관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 △여행객선 야간 운항 사업 확대 △해변공원, 다도해일출공원 야간 경관 개선 △은퇴 의료인 유입·정착 지원 △전국 초등학교 티볼대회, 크로스핏 전국대

회 유치 등이 제안됐다.

완도군은 발굴된 시책 중 법·제도 개선 사항은 전남도와 정부에 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목포해경, 성수기 대비 연안 안전시설물 점검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설물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목포시청, 신안군청을 비롯한 관내 7개 지자체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목포해경은 주요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항·포구, 해안가 등에 위치한 인명구조함과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다. 노후·훼손된 안전관리시설물과 취약개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시설물의 증설과 보수를 요청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농협 영암군지부,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

농협 영암군지부 임직원이 최근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 영암군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영암군지부는 올해 1월 부임한 정현정 지부장 주도로 '1인 3기부자 연결' 캠페인을 전개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있다.

농협 영암군지부는 영암을 '희망농업, 행복농촌 1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역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영암군민과 함께 성장해 온 NH농협이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농협과 지역의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대영약품, 진도군에 400만원 상당 파스 기탁

㈜대영약품이 최근 진도군에 400만원 상당의 파스 2,640매를 기탁했다.

기탁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스는 관내 어르신들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영약품은 나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이다. 전남 10개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파스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대영약품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